



VOYAGE

아 산 서 원 제 7 기

VOYAGE

아 산 서 원 제 7 기



“나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
자본이나 자원,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 확신한다.”

아산(峨山) 정주영(鄭周永) 선생

아산서원 소개	06
사업 소개(비전, 설립목적)	08
입학식	10
원생 소개	12
인문교육과정	14
인문과목 수기	16
교양과목 수기	30
종업식	50
Asan Washington Fellowship Program	52
Washington DC 인턴십 수기	54
Friday Program 수기	80
Asan Beijing Fellowship Program	94
Beijing 인턴십 수기	96
Friday Program 수기	100
아산정책연구원 및 아산나눔재단 소개	104



아산서원 소개

사업 소개(비전, 설립목적)

입학식

원생 소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로지 우수한 인적자원에 기대어 국가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큰 꿈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리더들을 양성해야 할 때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아산나눔재단은 공동으로 '아산서원(Asan Academy)'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인문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은 문학, 사학, 철학에 기반한 전통적인 인문교육과 현대적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PPE(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교육과정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동서양의 고전은 올바른 삶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공동체와 국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선진국이 오늘날에도 고전에 바탕을 둔 인문교육을 지도자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동체를 아끼는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은 공동체 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에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도록 아산서원 원생 전원에게 기숙사(아산학사)를 제공합니다. 조선시대 서원(書院), 영국과 미국의 명문 칼리지(College)의 공통점은 원생 또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태도는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일 뿐 아니라 미래 지도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은 원생들에게 미국 워싱턴 DC 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유명 싱크탱크와 비영리 기관에서 정식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진화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과제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리더들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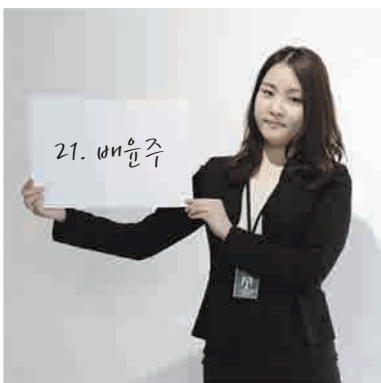
아산서원 제7기 입학식



1. **고주영** 학력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장래희망 참 스승 포부 이곳의 지혜를 세상으로 흘려 보내겠습니다. 2. **권송이** 학력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경영학과 장래희망 NGO 디렉터 포부 치열하게 배우고 책임감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3. **김기령** 학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정치외교학과 장래희망 사회공헌 전문가 포부 매사 최선을 다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겠습니다. 4. **김동민** 학력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장래희망 콘텐츠 디렉터 포부 건강한 몸과 내면을 갖춘 인재가 되겠습니다. 5. **김시내**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 광고홍보학과 장래희망 국제홍보 전문가 포부 아산서원의 끝자락에서 멋지게 성장한 제 자신과 마주하겠습니다. 6. **김중태** 학력 가톨릭대학교 의학과 장래희망 국제보건 전문가 포부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많은 배움을 얻겠습니다. 7. **박성규** 학력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경영학과 장래희망 조직심리학 전문가 포부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8. **백민성** 학력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공공거버넌스 와리더십 장래희망 국가 공직자 포부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9. **성예은** 학력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통계학과 장래희망 싱어송라이터, 작가 포부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며 성장하겠습니다. 10. **신유리**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장래희망 사회적 기업 정책 전문가 포부 아산서원에서의 배움과 실천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1. **윤동규** 학력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장래희망 사람을 위한 학교 설립자 포부 아산 서원에 제 향기를 물들이겠습니다. 12. **이하형** 학력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정치외교학과 장래희망 학자, 언론인 포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정효린** 학력 중국 Peking University 국제관계학과 장래희망 국제정치 전문가 포부 부족한 부분은 배우고, 가진 바는 나누겠습니다. 14. **조정민**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장래희망 변호사, 작가 포부 지금까지의 마무리, 또 다른 시작을 아산서원에서 하겠습니다. 15. **최은서** 학력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장래희망 Metropolitan Museum of Art 학예 연구원 포부 배움을 향한 열정, 다름에 대한 존중, 꿈을 위한 노력을 잊지 않습니다.



16. **고민정**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장래희망 북한 사회문화 전문가 포부 장차 남북한을 넘어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17. **김민성**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장래희망 실천하는 사람 포부 배려와 성실함으로 매 순간을 살겠습니다. 18. **김선희** 학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장래희망 외교관 포부 목표, 그 이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 **김재영**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 영문학과 장래희망 삶을 기록하는 드라마 PD 포부 '참 자기'를 발견하고 좋은 불편함 속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하겠습니다. 20. **박솔지** 학력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정치학과 장래희망 다큐멘터리리스트 포부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아는 지성이 되겠습니다. 21. **배운주** 학력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장래희망 언론인 포부 29명의 동기들과 함께 많이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10개월을 보내겠습니다.



22. **백서영** 학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장래희망 아티스트 포부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3. **윤나훈** 학력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장래희망 미디어 경영인 포부 탄탄한 근본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24. **윤인경** 학력 중앙대학교 불어불문학과 / 정치외교학과 장래희망 통일 후 한반도 재건사업 담당자 포부 날을 세우고 옷깃을 여미겠습니다. 25. **이신영** 학력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 언론정보학과 장래희망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포부 겸손한 자세로 많이 듣고 보고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26. **장은우** 학력 울산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장래희망 사랑을 나누는 사람 포부 모든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27. **조홍재** 학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장래희망 자선 사업가 포부 즐겁고 활기찬 10개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 **차민경** 학력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장래희망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포부 성장할 제 자신을 꿈꾸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 **최시환** 학력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장래희망 글 쓰는 재우 교수 포부 질문과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0. **황정운** 학력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장래희망 CSV 프로젝트 기획자 포부 보다 큰 뜻을,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인문교육과정

인문과목 수기
교양과목 수기
종업식

역사와 문학

낮선 이들의 대한민국 역사

동재
이 하 형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의 이분법적 대결구도 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두 집단의 역사관 충돌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에게 균형 잡힌 역사인식이 요구된다. 10주간의 고민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 질문이 맴돈다. 과연 우리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까?



역사와 문학

역사와 문학 수업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직접 보고 들으신 이인호 교수님의 생생한 경험담과 허동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지난 70년, 특히 해방부터 이승만 시대까지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현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학작품을 접했다.

서술의 주체를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설정하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 지금까지 배운 교과서의 요약된 문장 사이에는 많은 이들의 역사가 숨어 있었고, 이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조망함으로써 역사 해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배워야 한다.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와 문학’ 수업 허동현 교수님 말씀 中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0주간의 조선 여행을 마치며

서재
배 윤 주

이남희 교수님과 함께한 10주간의 『조선왕조실록』 수업은 조선시대를 재발견할 수 있었던 즐거운 여행이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본문을 바탕으로 여러 주제를 정해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조선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었다. 영의정, 집현전 등, 내가 국사시간에 외웠던 개념들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선시대의 역사적 순간들을 하나하나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조선에 대해 배웠지만 왕 이름이나 정책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같은 조선에 관한 개념만 외웠을 뿐, 조선이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고 사람들이 어떤 유행어를 썼으며 신분별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등 조선시대 사람들에 대한 지식은 전무했다. 이 수업을 통해 비로소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조선에 살던 사람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며, 시대는 다르지만 다양한 기쁨과 고민을 안고 살아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천자문(千字文)』과 『격몽요결(擊蒙要訣)』

통(通)하였는가

동재
신 유 리

『천자문』과 『격몽요결』은 조선시대에 대해 알고 있었던 얇은 지식을 넘어 우리의 선조들을 이해하고 현대와 통(通)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천자문』을 통해 우리는 천 개의 글자가 구를 이뤄 세상의 이치 등을 담아낸다는 것에 우리 선조들의 교육이 대단했음을 느낄



『천자문(千字文)』과 『격몽요결(擊蒙要訣)』

수 있었다. 또한 『천자문』을 외우면서 ‘암기를 통한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후에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의미인 ‘통(通)’이라는 글자를 받을 땐 큰 학문적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격몽요결』 수업은 글쓰기와 발표를 통해 옛 가르침들을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감상문을 통해 현실에서 『격몽요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유하기도 하였고 ‘평소에는 시도해 보지 못할 도전’을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연극이나 라디오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할 기회도 가졌다.

10주간의 수업 동안 우리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과거와 현대를 이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우리만’의 것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논어(論語)』와 『맹자(孟子)』

우리 생각의 뿌리를 찾다

동재
조 정 민

“지금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내용을 우리 현실에 맞게 혁신하고, 두 윤리의 시의성도 재고해야 할 시기다.”

‘『논어(論語)』와 『맹자(孟子)』’ 수업 이승를 교수님 말씀 중



『논어(論語)』와 『맹자(孟子)』

동아시아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철학에 어두운 나에게 『논어』와 『맹자』 수업은 제목부터 흥미롭게 다가왔다. 『논어』와 『맹자』의 원문을 스스로 읽고 해석해 본 후 원생들과 토론하다 보면, 어느새 고대 성인들의 생각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내 삶에 적용해 생각하다 보면, ‘한국인으로서의 나’에 대해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며, 그것은 결국 나의 뿌리와 전통에 대한 고민이었다. 『논어』와 『맹자』는 2000년 전에 쓰여, 삼국시대의 조상들부터 현대인들까지 읽으며 생각의 뿌리를 다지게 하는 고전이였다. 지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관습들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선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었다. 중국에서 쓰였지만 우리의 고전이기도 한 『논어』와 『맹자』를 읽고 나의 생각과 논리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 이 수업이 나에게 내민 최종 과제이다.

플라톤, 『국가·정체』

강독, 위대한 철학자와의 대화

서재
이 신 영

매주 600페이지가 넘는 고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플라톤의 『국가·정체』 수업은 우리 원생들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원생들은 책을 읽으며 수천 년 전에 그 대화가 벌어졌던 장소로 시간 여행을 하곤 하였다. 우리는 책을 통해 ‘올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친구들의 열띤 대화에 기꺼이 동참했다.

수업시간을 맞춰서 끝낸 적이 없을 정도로 원생들은 항상 올바른 정의와 정의를 구하는 여정에 열정적이었다. 등장인물에 몰입하고 자신의 색을 묻혀 주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소크라테스 특유의 문답법에서 나오는 철학적 사고를 깨우쳤다. 더 나아가 그들이 했던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대면할 기회를 가졌다.

비록 명확한 답을 얻진 못하였지만, 정의로운 삶을 찾는 과정에서 겪은 위대한 선인들과의 대화는 앞으로 원생들 각자의 길에 소중한 등불이 되어 줄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플라톤, 『국가·정체』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끝없는 물음, 자유

동재
백 민 성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지, 그 적절한 한계선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총기 소지 허용, 부르카 금지법 등, 자유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가 수업시간마다 던져졌다. 정답은 없었지만, 짧게는 1분, 길어도 3분 정도의 제한된 시간에 나와 반대 입장을 가진 원생을 설득해야 한다는 규칙은 토론에 신선한 긴장감을 주었다. 특히, 내 의견과 반대 입장에서 논의를 설파해야 하는 악마의 변호인 역할은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정책 입안, 집행자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국가 공직자를 꿈꾸는 나에게, 교수님께서 인용하신 플라톤의 명언은 강한 울림을 남겼다. 수업은 끝났지만, 자유와 간섭 간의 균형,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에 대한 나의 물음은 끝나지 않았다. 강의실 한 귀퉁이에 서로 마주보고 서서 각자의 논리를 주장하던 경험이, 평소엔 복잡하게만 느껴져 피했던 주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그 속에서 나름의 논리를 찾아내는 습관을 만들어 준 기회가 되었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함재봉 원장님께서 우리가 감시와 권력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뒤집어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원장님과의 수업은 우리가 당연시했던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판옵티콘 안을 돌아보다

서재
백 서 영

감시는 끊임없이 사회의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해내며 사회는 비정상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을 격리하고 교화한다. 형벌의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치밀히 파헤쳐 나간 『감시와 처벌』 수업에서 원장님, 그리고 원생들과 함께 책을 한 문장씩 읽어 내려가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수업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만연했던 근대 사회를 생각하면 비정상에 대한 격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감시 체제가 정교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정직하게 행동하게 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비가시적인 권력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권력의 존재가 부정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을 깨달았다.



스미스, 맑스, 베버

스미스, 맑스, 베버

사상을 넘어 우리 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다

서재
차 민 경

화폐, 사유재산, 노동자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스미스, 맑스, 베버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론을

다 이해하는 것은 힘들며, 나 역시 이들을 그저 이론적인 사상주의자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저서를 원문으로 읽으며 이 이론들이 근대 사회를 면밀히 관찰한 후 만든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느꼈다. 각자의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을 분석해,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했으며 대처방법까지 준비한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복지 개념, 맑스가 지적인 자본주의의 한계가 낳은 저신뢰 사회 등 다양한 개념에 대한

“스미스와 맑스는 공통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맑스는 또한 ‘경쟁’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의 고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 맑스, 베버’ 수업 서정민 교수님 말씀 중

교수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내가 사는 현실이 100여 년이 지나서도 어떤 부분에서 맞닿아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스미스, 맑스, 베버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나눴던 사회에 관한 고찰과 고민들은 원생들의 마음에 깊게 남았다. 이는 우리와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오리엔탈리즘』과 『문명충돌론』

How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on One Earth

동재
이 하 형

장지향 교수님과 함께한 수업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읽으면서 문명, 문화, 세계화 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매시간 3, 4명의 학생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생각한 인과관계에 대해 발표하였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원생들은 두 고전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오리엔탈리즘』과 『문명충돌론』

세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처럼 보인다. 이러한 세계화가 사이드의 말대로 진화한 제국주의인지, 헌팅턴의 생각대로 인류가 보편적 가치를 찾아가는 긴 여정의 일부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장지향 교수님의 수업은 사이드와 헌팅턴의 상반된 시각, 그리고 문명과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원생들의 생각을 들으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국제정치 현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제정치이론

『인간, 국가, 전쟁』 그리고 나

동재 이 하 형

인류는 오랜 세월 평화를 꿈꿔왔지만, 역사는 냉혹한 현실만을 보여줬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커지는 파괴력,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핵무기는 인간에 의해 지구가 멸망하는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케네스 월츠는 『인간, 국가, 전쟁』에서 전쟁의 원인을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한다. 월츠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적 무정부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가 간 전쟁의 가능성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포개지는 한반도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서로 다른 국제정치이론들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지만, 정현주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우리는 월츠가 한 분석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느꼈다.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경제사

현상을 냉철하게 보는 눈

동재 박 성 규



김승욱 교수님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경제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잘못된 경제통념’은 깨졌다. 서양의 경제적 번영은 식민지 경영 때문이 아니라 효과적인 제도 창출에 기인했다는 것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사실 정통 케인즈학파의 논리와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 등 객관적으로 경제현상을 조명하는 냉철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전 시대 사람들의 삶부터 지금의 삶까지 경제가 끊임없이 흘려온 흔적을 큰 그림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시각 또한 확장되었다.

경제는 우리 삶과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야기도 아니고, 경제학자들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 수요와 곡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제학의 다양한 이론도 중요하지만, 경제학자가 아닌 우리는 삶 속에서 실제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경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앞으로도 세계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이 수업에서 얻은 냉철함을 통해 경제를 ‘치우치지 않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다.

시장과 경제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우리들

동재 백 민 성

매 분기 배정된 경제학 수업은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이상을 논하는 우리를 다시 현실로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수업시간마다 인간 사고의 바탕에는 합리적 이기심이 작용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냉철하게 논의했다. 인문학에서는 사색과 토론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능동성을 강

조했다면, 경제학에서는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을 제시했다.

수업을 통해 나는 가식을 벗어던진 후의 진정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었다. 자칭 이성적인 존재라고 자부하며 경제활동을 할 때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그러한 사고 자체가 경제학이라는 패러다임에 충실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만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던 내 행동들이 경제학의 거대한 담론 아래서 얼마든지 추론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경제학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인문학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문화와 경제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찾기

동재 김 기 령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26년을 살아왔지만, 누가 서울의 특징, 라이프 스타일 혹은 서울의 명소나 맛집 등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선뜻 답을 내어줄 수 없다. 범위를 좁혀 우리 동네에 관해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막막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문화와 특징을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모종린 교수님의 문화와 경제 수업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며, 이를 파악해 경제활동에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를 각국의 다양한 기업 발전 사례를 통해 고민해보았다. 단순히 도시와 시골이라는 분류를 뛰어넘어 각 지역의 인구 구성, 자연환경, 문화 등을 고려해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문화와 경제

이 강의를 통해 그동안 멀게만 보였던 무역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소비하던 여러 상품들이 수차례의 국제회의와 복잡한 과정을 통해 수입되었다는 배경을 알고 나니, 칠레에서 온 청포도 한 송이조차 굉장히 대단해 보였다. 무역으로 인한 경제발전은 우리 세대가 당장의 밥줄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했다. 국제무역체제는 그 여유의 존재를 깨닫게 해준 선물과 같은 수업이었다.

국제무역체제



수사학 인문학 뷔페, 수사학

서재
김민성

매주 화요일 아침, 원생들은 함재봉 원장님의 수사학 수업을 기대하며 일어나곤 했다. 수사학 수업은 다른 수업과 달리 편히 들을 수 있었고 동재와 서재가 함께 하는 유일무이한 강의라는 점도 즐거움을 더했다.

원장님께서 엄선하신 자료로 이뤄진 수사학 강의는 마치 인문학 뷔페나 다름 없었다. 유명인사들의 연설, 명화의 유명한 대



수사학

목, 음악 관련 다큐멘터리 등에서 우리는 삶의 여러 모습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시간 조금 넘는 짭짤한 강의였지만 매시간 그 감동과 여운은 말 그대로 강렬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말과 글로 전달된다는 사실에서 인문학과 수사학은 유사함을 깨달았다. 수업 끝에 의욕이 솟구치거나 때로는 숙연해지는 원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이 갖는 그 가치는 단순한 강의를 뛰어넘어 인문교육의 의미와 아산서원 원생의 의무를 되새기는 성장의 순간이었음을 확신했다.

열림과 닫힘 삶을 관통하는 바로 그것, 종교

동재
김기령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주의해야 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이다. 유신론자, 무신론자 모두 굉장히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이다. 조금 두렵고, 호기심이 어린 마음으로 강의

실에 들어선 우리는, 종교라는 거대한 현상에 대해 ‘닫혀있었던’ 단독적인 존재들이었다.

열림과 닫힘 수업은 믿음, 종교의 언어, 태어남과 죽음을 통해 ‘종교’라는 문화적 현상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 사회에도 우리는 아이를 갖는 것을 ‘신의 축복’이나 ‘하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종교에는 생명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부딪히



열림과 닫힘



는 난제들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정진홍 교수님과 함께한 대화와 토론시간은 늘 궁금했던 질문을 다루며 신선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수업을 마친 우리에게 종교는 더 이상 닫혀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이며 다양한 타자들이 만나 형성한 또 하나의 공동체이며, 우리 인간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바로 그 현존이었다.

말의 매혹과 서사의 매혹

시가 내게로 왔다

서재
장은우



말의 매혹과 서사의 매혹

봄을 알리는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한 4월의 어느 날, 원생들의 마음 곳곳에도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유종호 교수님의 말의 매혹과 서사의 매혹 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교수님의 『시란 무엇인가』와 로맹 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를 읽으며 우리는 타인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소개하고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을 낭송할 때에는 아름다움과 아픔에 대한 감정들을 공유하며 모든 원생의 마음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듯했다.

시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했고, 밝은 마음을 더 영롱하게 비춰주기도 했다. 난생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시와 만난 것이다. 시와 만난 후 우리는 시처럼 진솔하고 담백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와 언어의 아름다움에 취했던 5주가 지나 꽃들은 지고 수업도 끝이 났다. 하지만 수업시간 강의실을 가득 채웠던 시, 그리고 삶에 대한 따스한 호기심은 여전히 원생들의 마음에 환하게 피어있다.

“그는 삶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황혼의 순간 문득 다가와 모든 것을 환하게 밝혀줄 그런 행복의 가능성을 은근히 믿고 있었다.”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본문 중

도시·문화시대의 인문학

생활에서 인문학을 발견하다

서재
황정윤

사람들은 흔히 인문학을 책에서만 찾으려 하는 실수를 범한다. 나 역시 은연중에 인문학을 삶과 거리가 먼,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을 담은 책과 같은 것으로 대했다.

그러나 김형국 교수님과 함께한 도시·문화시대의 인문학은 나에게 인문학의 본질이 단순히 지식을 통한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넘어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임을 알려 준 시간이었다. 훌륭한 고전을 읽더라도 활자를 통해 얻은 지식이 정작 현실에서는

어떠한 깨달음도 주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와 개인의 삶이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배우면서, 나는 내가 속한 사회가 나와 어떤 교차점을 갖는지 돌이켜 볼 수 있었다.

‘문화란 인간이 가지는 꿈과 현실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수업을 통해 우리는 종잇장과 바깥공간을 넘나들며 지식과 현실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5주간 배운 것은 앎으로서의 지식이 아닌,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발견하는 방법이었다.



영화로 읽는 동아시아 문화

영화로 읽는 동아시아 문화 수업에서 우리는 이슬람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를 보았다. 다섯 편의 영화(映畵)는 우리가 글로 알고 있던 사실을 영상을 통해 피부로 전달해 주었다. 영화의 진정한 의미는 그곳에 있었다. 그들의 잔인하고 비참한 현실을 내부에서 삭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알려 그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영화는 스스로 분노하고 절규하며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똑똑히 보고, 듣고, 느껴라.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

우리가 읽은 영화는 재앙과 분노를 비추는 거울, 영화(映禍)였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슬퍼하는 마음훈련을 이겨내고 난 뒤에야 새로운 영화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죽어가는 여자와 총성이 난무하는 그림이 아닌, 꽃과 평화가 만발하는 영화. 그 영화를 위해 스스로의 구습을 벗어나려는 이들과 잘못된 것에 대해 기꺼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마지막 영화가 끝나고, 정든 이 곳을 떠나도 모두에게 그 용기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있어 영화는 이제 영화(映華)가 될 것이다.

영화로 읽는 동아시아 문화

영화는 영화다

서재
황정윤



도시·문화시대의 인문학



건축의 공간사회학

건축의 공간사회학

새로운 시각의 발견

동재
윤 동 규

“5번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는 서현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5편의 영화 같은 수업을 경험했다. 현재 서울의 모습부터 10년 전, 100년 전까지,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며 그 공간 속에 녹아 있는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사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로 시작한 청계천에 관한 수업을 들은 날 저녁, 나는 곧바로 청계천 일대를 걸으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수업을 통해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며 무심결에 보았던 공간과 건축물에 담겨 있는 사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수업을 모두 마친 지금, 서울 시내에 나설 때면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내 눈 앞에 놓여져 있다. 앞으로도 그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채우는 공간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며 살아가고 싶다.

서예·문자학

묵향에 잠기는 시간

동재
최 은 서



서예·문자학



매주 월요일, 이른 수업을 준비하는 분주한 아침이 꿈인 양, 수업시간은 무척 조용하다. 베틀과 먹이 만나 울리는 돌 소리, 구궁지를 췌기는 조용한 발소리 등 낮선 소리들만이 흰 구궁지와 나 사이를 채운다.

마치 선계(仙界)와 같은 고택에 둘러 앉아 우리는 한자와 서체에 대해 배웠다. 설명을 듣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먹을 갈았는데, 찬찬히 ‘나’를 갈아 진득한 먹물을 내는 과정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했다. 정성스레 간 먹물에 붓을 적셔 글씨를 쓸 때도 온 힘을 다해 구궁지에 나의 마음가짐을 담아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한 자 한 자, 나를 녹이면서 글자를 쓰다보면 아찔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Thesis Writing

“서예·문자학 수업시간에는
묵향의 은은함과 청춘의 정열이 함께 어우러진다.”

‘서예·문자학’ 수업 유호(攸好) 박재복 교수님 말씀 중

교수님께서시는 시와 그림이 함께하는 궁극의 단계가 서예라고 하셨다. 5주간의 서예·문자학 수업시간을 통해 흑백의 추상이 얼마나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구궁지와 나 사이에 붓과 먹으로 스스로를 담는 시간, 아산서원 서예·문자학 수업의 묘미는 이러한 정직함을 되새기는 데 있었다.

Thesis Writing

This is writing!

서재
김 재 영

인류의 가장 놀라운 발명은 과학의 진보, 생산의 증대 같은 것이 아닌 ‘설득’과 ‘공감’이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이해, 경계의 공유는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공감과 설득은 그

것을 원한다고 해서만 존재할 수 없다. 공감과 설득을 위해서는 먼저 ‘논리’와 ‘감성’을 통해 타인이 나의 논리를 인식하게 하고 감동시킬 줄 알아야 한다.

고명현, 최현정 교수님과 함께한 Thesis Writing 수업은 설득의 한 방법인 글을 이성적으로 그려냄과 동시에 그 활자 사이 사이에 감성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쓰기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설득의 가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비언어적 수단을 배제하고 있어 얼핏 불리한 방법처럼 보이는 글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 담박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설득의 방법이라는 것.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글쓰기에 관해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수업이었다.

함재봉 원장님 명사특강 1

2015. 03. 20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다

동재
박 성 규

따스한 3월, 함재봉 원장님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인문학에 대해 알아보고 아산서원에서 인문학을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원장님께서는 취업난으로 인한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작금의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인문학을 ‘사랑’하기에 공부하는 아마추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투입 대비 산출의 잣대로 인문학을 판단하지 않고, 배움 그 자체를 즐기며 공부하는 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문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아산서원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달이 넘었다. 늘어나는 과제에 심신이 지치고 초심이 흐려지는 이 때에, 우리는 원장님의 명사특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세

상과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기에 인문학을 더 알아야 하며 그만큼 더 사랑해야 한다. 비록 그 과정이 고될지라도, 우리는 머리로 가슴으로 인문학을 더 탐구하고 싶다. 인문학을 사랑하는 아마추어로 살아가고 싶다.

배우 손숙 선생님 명사특강

2015. 04. 07



찬란한 젊음을 향하여

동재
최 은 서

한 노인의 삶을 온전히 느끼고(感) 이에 마음을 움직이게(動) 한 배우 손숙 선생님의 명사특강은 한 편의 진솔한 공연이었다. 전쟁 직후 서커스를 따라다녔던 밀양의 한 소녀에서 연극을 사랑했던 젊은 주부, 힘든 시기에도 세상으로 나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라디오 DJ, 시대를 고민한 ‘배우 출신’ 정치인에서 다시 배우 손숙으로. 매 순간 다양한 배역을 맡아 살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시인은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존재야말로 젊다’고 정의했는데, 우리는 배우 손숙 선생님의 삶에서 지금까지도 타오르는 그 ‘젊음’을 보았다.

아산서원에서의 배움과 경험은 그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잇닿아 있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삶에 대한 애정과 치열함을 잃지 않고 ‘바람’ 속에도 ‘찬란히 띄워 오는 어느 아침’을 맞이하길 기대한다.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님 명사특강

2015. 05. 08



타인의 눈으로 본 우리의 형제

동재
정 효 린

통일과 북한 문제는 우리 민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다. 그러나 그레그 스칼라튜 미북한인권위원회(HRNC) 사무총장님의 명사특강을 통해 우리는 한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관점에서 북한을 보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알 수 있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국제정치사적 관점에서 북한이 여러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진 독특한 국가라고 설명하셨다. 그 내용은 우리가 국사시간에 배우던 민족 중심적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이어서 사무총장님께서는 북한의 독특한 사회상에 관해 설명하시며, 심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유린 등의 참상들을 담담하게 묘사하셨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우리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많음을 지적하셨다.

특강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끼게 되었다. 북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명쾌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로도 통일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고명현 교수님 특강

2015. 05. 29



Think Tank 101

서재
고 민 정

국내인문교육 후 파견되는 ‘싱크탱크’에 대해 평소에 궁금증이 많았지만 목표도 규모도 제각각인 수십 개의 기관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가능하기 어려웠다. 인턴으로 일할 기관을 배정받은 후 해당 싱크탱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싱크탱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감이 잘 오지 않았다. 워싱턴 DC 중심가의 번듯한 건물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여기서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지 꼭 10개월. 나는 드디어 싱크탱크란 무엇인지 실마리를 찾았다.

고명현 박사님의 특강을 들으며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고, 싱크탱크의 중요한 줄기를 알아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싱크탱크의 어원, 싱크탱크의 기능, 워싱턴에 싱크탱크가 가장 많은 이유, 그리고 그 종류와 성향 등을 비롯해 나의 수많은 호기심들은 특강을 통해 자연스레 채워졌다. 아산서원에서 ‘국제감각’을 느끼기 위한 장소로 선정한 싱크탱크, 그곳에 가서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장’을 어서 느껴보고 싶다.

최재천 원장님 명사특강

2015. 06. 12



통섭의 시각으로 세상 바라보기

서재
조 홍 재

5개월간 인문교육과정 중에 있는 원생들에게 있어 자연과학에 대한 최재천 원장님의 명사특강은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시야를 확 트이게 해주었다.

‘다윈’의 유명한 이론을 통해 인문, 사회학과 자연과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할 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던 특강은 단 한 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는 신선한 충격의 연속이었다. 더 나아가 융합의 시너지로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특강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두 더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향은 경쟁도, 협동도 아닌 그 둘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Coopetition (Cooperation과 Competition의 합성어)’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새삼 아산서원에서 함께 하는 원생들을 떠올리게 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원장님의 반짝이는 눈빛, 확신에 찬 목소리, 미소를 띤 얼굴이 지금도 선명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이준구 교수님 명사특강

2015. 06. 25



현실과 이상의 거리 좁히기

동재
권 송 이

사람의 이기심을 원동력으로 하는 효율적인 시장이야말로 수많은 문제의 해답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다. 국가의 통제경제가 한계에 부딪혀 무너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목도하고 자유로운 시장의 조절능력을 배웠을 때는 작은 확신을 품기도 했다.

이준구 교수님의 명사특강은 이런 나의 시각을 확대시키고 국가의 경제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시장과 정부’라는 주제로, 교수님께서서는 시장과 정부의 책임이 무엇인지 또 양쪽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말씀해주셨다. 특강을 들으며 어느 한쪽이 이상적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면 현실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맹목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한 논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안 하나부터 집중해 그 방향이 바람직한지 함께 토론하는 것. 그런 식으로 점차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것이 경제에 있어서 현실과 이상의 거리를 평화롭게 좁혀나갈 방법이 아닐까?

함재봉 원장님 명사특강 2

2015. 07. 17



한국 사람 만들기

동재
고 주 영

“한국 사람이란 무엇일까?” 함재봉 원장님께서 명사특강을 시작하시며 톱 던지신 물음은 뜻하지 않은 의아함을 마주하게 했다. 그래,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한국 사람’에 대해 합의를 해 본 일이 있던가? 20세기 초 위정척사파, 친일파, 친미 기독교세력, 공산당과 같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 중 무엇 하나도 온전히 한국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불러온 열강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한국다움’이 아닌, 타국과의 관계에서 존재 이유를 찾았기에 한국 사람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었다. 다시금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도 벌써 60년이 되어 한국 사람이라는 대상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

명사특강의 마지막은 또 다른 물음으로 끝났다. 한국인의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떤 한국 사람으로 정의될까? 해외 인턴십을 앞두고, 명사특강에서 던져진 질문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용영어



영어, 제대로 알고 바르게 쓰자

서재
김 선 희

학교에서 내내 영어를 배워왔음에도 실생활에서 영어를 쓰는 것이 항상 서투른 우리는 실용영어 수업을 통해 '진정한'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

Linn Roby-Mueller 교수님과 Danton Ford 교수님의

실용영어 수업은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교수님께서 뉴스 앵커나 명사들의 연설을 듣고 따라 말하는 Shadowing, 3분 동안 자유 주제로 말하고 이를 녹음한 후 점검을 해보는 Voice Recording 등을 가르쳐 주셨다. 익숙하지 않은 학습법이었지만 꾸준히 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수업시간에 간단한 시제 문제에도 쫄쫄대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영어를 쓰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내 의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간결한 글쓰기를 배우며 정확한 의미도 모르는 채 멋져 보이는 단어와 문장에만 집착했던 예전의 나를 반성했다.

영어를 처음 배운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매시간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사실에 즐거웠고,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실용영어 수업은 우리에게 단순히 영어 사용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준 자양분으로 남을 것이다.

실용중국어(초급)



응답하라 2015

서재
윤 인 경

중국의 경제적인 풍요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중국에 맞닿아 있는 한국에도 중국어 열풍을 일으켰다. 이런 시대의 부름에 답한 듯 아산서원의 실용중국어 초급 수업은 내 마음을 들뜨게 했다.

수업시간에는 간단한 인사 방법부터 관심사 말하기까지 다양한 회화 표현을 직접 말하며 배웠고, 중국의 시와



노래를 통해 문화를 맛보는 것으로 채워졌다. 서투른 중국어로 함께 실컷 웃고, 어깨를 들썩이고 나면 어느새 중국어가 입에서 나오기도 했다. 낯선 언어가 어설픔게 머릿속을 맴돌지 않고, 맞춤옷을 입은 듯 편안하게 다가왔다.

늘 미소를 머금고 격려해주는 장쯔위 교수님과 반짝이는 눈으로 수업에 매진하는 동기생들은 지칠 줄 모르고 중국어를 배우는 데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수업을 통해 나는 중국 친구들에게 웃음지으며 먼저 말을 건넬 여유와 '중국'과 친해질 요량까지 얻었다. 이를 발판 삼아 세계무대를 종횡무진할 멋진 미래를 그려본다.

실용중국어(고급)



아산서원에서 중국 대륙의 맛을 음미하다

동재
김 동 민

매주 월요일 오후, 동재 강의실은 베이징으로 인턴십을 떠날 원생들과 자오리쥬엔 교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다. 가족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강의에서 원생들은 예습해 온 본문을 읽어나갔고, 더 나아가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였다.

원생들은 강의를 통해 단순히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중국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며 한국인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중국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인문교육 전반에 걸쳐 진행된 소수 정예의 실용중국어 고급 강의는 원생들에게 수업 그 이상이었다. 강의를 통해 가깝고도 먼 나라인 중국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

었고, 중국으로 인턴ships을 떠날 원생들에게 기대감과 자신감을 안겨 준 시간이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2015
0410

나를 얹으로써 타인과 소통하다

동재
김 동 민

영어 프레젠테이션 시간에는 자신감 넘치는 연설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에서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셨던 나승연 교수님과 강민정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뵈 수 있었다. 교수님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명료한 연설 이론을 바탕으로 원생들은 영어로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설이 끝난 후 두 교수님과 원생들의 예리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수업을 통해 글의 내용을 말의 크기와 높낮이, 몸짓, 그리고 진심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와 함께 전달할 때 비로소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그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자신을 당당하게 청중에게 열어 보일 수 있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듣는 이와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영어발음에 신경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나의 역량을 크게 발전시킨 소중한 시간이었다.



예절교육(1): 전통예절교육



한복으로 꽃피운 봄날

동재
김 시 내

나른한 오후, 안산시 행복예절관의 한옥과 벚꽃나무가 원생들을 반겼다. 올바른 공수와 자세로 인사를 드리고, 한복을 입으니 새삼 우리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복을 입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한복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국제행사에서 한복을 입는 것이 우리 옷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진 다도 교육시간에는 남녀 원생이 짝을 이루어 번갈아 가며 서로에게 차를 대접했다. 찻잔을 채울 때엔 물



줄기를 길게 해서 그 소리를 느끼라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다. 일제히 차를 따르며, 찻잔과 부딪히는 맑은 물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도 예절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차를 대접할 때 소매를 다루는 방법부터 마시는 순서까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도의 몸가짐과 마음가짐 또한 배울 수 있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어깨너머로 배우고 들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015
0605

예절교육(2):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



인턴ships을 향한 작은 도움닫기,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를 익히다

서재
박 술 지

네 번에 걸쳐 진행된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은 인턴ships의 출발선에 나아가기 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발을 고쳐 신는 시간이었다. 악수하는 법부터 식사예절, 심지어 명함을 주는 방향까지 배우며 사람들이 예절을 지



켜야 하는 이유와 그 예절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수업인 테이블 매너 실습시간에는 와인과 함께 코스 요리를 먹으며 그동안 배웠던 매너를 직접 체험해 보았다. 처음에는 어떤 포크를 써야 하는지부터 헷갈렸지만 식사를 진행하면서 동기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모두가 정장을 차려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비로소 워싱턴 DC와 베이징 생활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다 불현듯 우리가 모두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에서 배운 배려와 예절로 세계무대에서 더 빛날 우리를 그리며 즐겁게 마지막 잔을 들었다.

2015
0522

문화기행



2015
0523



심표를 찍고,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다

동재
고 주 영

인문교육과정의 반이 지난 청향 가득했던 날, 우리는 문화기행을 떠났다. 들뜬 마음으로 도착한 울산에서 우리는 울산대학교, 현대중공업 방문을 통해 아산 정주영 선

생님의 가치관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향했던 경주는 오랜 것이 주는 특유의 고즈넉한 기운으로 가득하였고, 이곳에서 우리는 1000년 문화의 우수성을 느끼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문화기행의 백미는 서약서원에서 한 서원 놀이가 아니었을까? 긴 하루 끝, 정자에서 치러진 시 낭송 대회는 나의 마음자리를 살피고 원생들의 시를 들으며 미처 헤아리지 못한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또한 『대학』 경 1장을 읊으면서 옛 원생들이 수양했던 정신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다.



남은 아산서원 생활에 임할 원동력을 만들어 준 이번 문화기행은 우리에게 하나의 심표를 그려주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쉬어가며 마침내 숨을 고르고, 스스로 서 있는 자리를 되돌아보며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015
0321

봉사활동(1): 노숙인 재활 병원 청소 봉사



30명의 따뜻한 손길

서재
배 윤 주

토요일 이른 아침, 청량리의 작은 천국, 다일천사병원은 30명의 따뜻한 손길로 북적이었다. 병마와 홀로 싸워야 했던 노숙인들을 무상으로 치료해 드리고 가족처럼 돌보아 드리는 다일천사병원은 우리가 결정한 첫 번째 봉사활동 장소였다. 도착하자마자 간단한 사전교육을 받고 역할을 분담해 열심히 봉사에 임했다. 예정했던 2시간 반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위해 우리 모두는 서원에 입소하자마자 치열하게 고민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단순한 봉사체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의 경험이,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다. 그 고민의 답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 의식하지 못했던 ‘당연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었다.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이와 더불어 살아가며, 남을 돌보고 또 돌봄 받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의 당연함. 그 ‘당연함’을 삶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오신 그분들에게 기쁨으로 선사할 수 있었기에, 30명 모두에게 진실로 귀한 시간이었다.

봉사활동(2): 나무심기 행사 봉사



2015
0403

한강의 안식처를 꾸리다

서재
김 선 희

식목일을 맞아 우리는 서울 시민들의 쉼터, 잠실 한강공원 부지에 나무를 심기 위해 모였다. 강 바로 앞 잔디밭에 마련된 자리에서, 우리는 우선 한강의 수질 오염에 식수가 가지는 의미를 배웠다. 우리가 심을 갯버들나무는 물을 좋아하고 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비가 올 때 주변도



로로부터 흘러나오는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었다.

따가운 햇볕 아래, 원생들은 돌과 뿌리가 얽혀 있는 땅에서 흙을 파내기 위해 절절했다. 처음 삽을 들어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우리는 시키는 사람이 없이도 일을 나누어 하나하나 나무를 심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팔에 힘은 빠졌지만, 완성된 갯버들나무 숲을 보면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 또,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로서가 아닌 인간과 공존하는 자연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매번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던 식목일, 1년 후 자라나 있을 갯버들나무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봉사활동은 마무리 되었다.

봉사활동(3): 하우스 농작물 심기 봉사



논밭의 유쾌한 수업

동재
김 중 태

서울에서만 자라 농촌에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농촌봉사활동은 마냥 낯선 것이었다. 사회적 기업인 교남어유지동산의 ‘자연친화적인 직업재활모델을 수행한다.’는 비전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다. 따스한 4월의 봄날, 원생들과 함께 도착한 교남어유지동산의 논밭은 마치 새로운 강의실 같았다.

잡초를 제거하고, 논밭에 비닐을 씌우면서 얻은 것은 농사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었다. 평소 필통이나 휴지 같은 공산품들과 다름없이 소비하던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서로 돕고 있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 장애인들과 이야기 나누며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원생들과 함께 삽질을 하고 비닐을 씌우며 땀 흘리고, 밥 먹었던 경험 역시 수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큰 수확이었다. 논밭에서 진행된 수업은 유익한 배움과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했다. 이 유쾌했던 수업은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한 사진으로 남을 것이다.



2015
0326

문화체험(1): 연극 <3월의 눈> 관람



봄날, 아산과 함께 3월의 눈을 느끼다

동재
윤 동 규

지난 3월의 마지막 목요일 밤, 아산서원에서 명사특강을 해주셨던 배우 손숙 선생님의 연극을 관람했다. 제목 ‘3월의 눈’에서 초봄에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으며, 그와 함께 꽃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움과 눈의 차분함,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쓸쓸함까지도 느껴졌다.

공연은 유별나게 애잔하지도, 걱정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두 눈에 잠시 눈물이 고이고 목구멍이 저며 온 것은 배우들의 대사 없는 표정 때문이었다. 큰 웃음이나 터져 나오는 울음 대신, 공연은 ‘나는 과연 그런 표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잠기게 했다. 아산서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말 없이도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게 될까?

공연이 끝난 후, 다른 원생들도 각자 느낀 바를 되뇌는 듯했다. 몇몇은 눈이 부어있기도 했고, 또 몇은 흥분하여 다른 원생들과 감동을 나누고 있었다. 포근한 3월의 밤

공기 속 그들과 함께 걸으며 느끼는 두근거림이 마치 3월의 눈을 맞고 있는 것 같았다.

문화체험(2): 민화 그리기 체험 및 국악 감상

2015
0501



춘풍에 실린 우리네 멋

서재
윤 인 경

소담스런 꽃송이들을 양 길가로 하여 향한 발걸음 끝에는 북촌문화센터가 있었다. 웅장하게 내려온 기와지붕, 반질거리는 대청마루와 묵향에서 풍기는 멋이 우리를 반겼다.

우리는 처음으로 흰 화선지 위에 형형색색 모란을 피워 올리는 체험을 했다. 굳이 색을 입히지 않아도 여백의 미가 드러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잊고 사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고, 붓으로 색을 더하며 내 마음 또한 어느새 안락해졌다.

이후에는 봄바람처럼 살랑거리는 우리 전통가락을 귀에 담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가와 같이 친숙한 곡이 가슴 트이게 울려 퍼졌고, 대금과 소금, 열두현의 가야금 소리는 기세 좋게 어우러졌다. 원생들은 어깨를 연신 들썩거리고 박수를 치며 그간 묻은 피로를 털어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색과 소리인가 거듭 감탄하며 나왔을 때, 대문에 있는 기와가 부처의 미소처럼 웃고 있었다.



은은한 멋의 민화와 봄 내음 가득했던 가락 속에 우리는 서원 생활을 더욱 신명 나게 하리라는 마음을 담았다.

사물놀이·설장구



하나의 호흡

서재
이 신 영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호흡'이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연주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 서양 음악과는 달리, 우리 음악은 장단이 연주 중간에 빨라지거나 느려지곤 한다. 그렇기에 연주자들끼리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실제로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전문 연주자들도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른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연습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다. 그만큼 호흡은 우리 음악 연주에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20주간의 사물놀이·설장구 수업은 사물놀이

의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었다. 악기를 접해본 적이 없는 원생들이 짧은 시간에 대단한 기술을 배울 수는 없었다. 다만 서툴긴 해도 각각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맥없이 따로 흩어지지 않고 견고한 소리가 되도록 호흡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1주일에 1번 있는 수업에 그치지 않고 하루 24시간을 20주간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같이 호흡하는 법을 배웠고 이는 그 어떤 공연보다 크고 신명 나게 강당을 울렸다.

비록 약 15분의 공연은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가 되어 신나게 악기를 두드리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 맴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원생들뿐만 아니라 더 큰 세상과 호흡할 때 어떤 연주를 하게 될지를 기대해 본다.



봉산탈춤



흥겨움으로 하나되는 아산서원

서재
최시환

봉산탈춤 수업 첫날, 난 연습실에서 다 함께 몸을 움직이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 팔로 큰 원을 그리고 다리로 공간을 휘젓는 탈춤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수업이 끝나자 땀으로 흥뻑 젖은 티셔츠를 입고 서원으로 돌아왔지만 기분만큼은 정말 상쾌했다.



복잡한 동작을 배우고 대사를 외우며 봉산탈춤 팀은 온 몸과 마음으로 춤을 익혀나갔다. 연습이 끝나면 기진맥진하고 다음날까지 근육통으로 고생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넘치는 열정으로 아침마다 함께 연습했다. 그렇게 탈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열정과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종업식 날, 드디어 우리의 봉산탈춤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탈을 썼기에 숨은 금세 가빠지고 시야도 좁아졌지만, 오롯이 나의 몸짓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제7기 원생들이 모두 모이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추억하며 외치고 싶다. “오늘 이 자리에 아산서원 제7기 원생들이 다 모였으니 다 함께 합동 춤이나 추고 들어가는 것이 어떨하겠느냐!”

태극권



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동재
성예은

새벽 6시 50분, 경희궁 뒤흔에는 졸린 눈으로 30명의 원생이 웅기중기 모였다. 아직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졸림을 털어내는 준비운동을 끝낸 후, 그 기세로 태극권을 시작했다. 우리 몸 곳곳을 연결하는 관절 하나하나의 피곤함을 풀어주고 다시 부드럽게 이어주었다. 태극권을 마칠 때가 되면서 서서히 몸과 마음이 깨어나며 파란 하늘을 담은 듯 기분이 상쾌해지곤 했다.

우리는 아산서원에서 수많은 읽기 자료와 숙제, 그리고



각자 맡은 일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쌓여가는 피로도 잊은 채 자신을 채찍질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우리에게 태극권 수업은 잠시 쌓인 할 일을 멈추고, 느린 움직임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작은 손짓과 발짓까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침에 눈을 조금 더 붙일 수도 있지만, 대신 그 시간에 태극권을 수련하며 몸과 마음 모두 찬찬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즐겁지 않을까?

2015
0313

팀스포츠(1): 체육대회



아육대, 몸으로 부딪치며 친구가 되다

서재
박솔지

체육대회 준비 팀은 마치 보안요원들같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덕분에 큰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체육대회, 이름하여 아육대(아산서원 육상 대회)! 기대에 부응하듯 모든 프로그램이 흥미로웠다. 15명씩 팀을 나누어 ‘단체 줄넘기’, ‘이어달리기’, ‘몸으로 말해요’ 등

의 게임을 진행했고, 예상할 수 없는 승부가 이어졌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친구’였다. 입소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나 서로 어색한 경우도 많았는데,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큰 형님께서는 벌칙으로 상상도 못 했던 애교를 부리셨고, 조용하던 외교학도는 소녀시대 못지않은 춤을 선사했다. 안전하게만 보였던 17명의 소녀는 꼬리잡기에서 그녀들의 독한 근성을 몸소 보여주었다. 목청껏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직접 계획하고 진행한 우리만의 체육대회!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더욱 값진 잊지 못할 체육대회였다.



2015
0508

팀스포츠허(2): 서바이벌 게임



인생을 배우기 위해 방아쇠를 당기다

서재
김민성

산들바람이 부는 5월 끝자락의 어느 날, 우리는 한국서바이벌 용인1교장에 도착했다. 어린아이처럼 마냥 들떠 바빴던 한 주간의 피로는 어느새 잊은 채, 우리는 보호복을 입고 보호장비를 착용했다.

강사님의 설명 후, 총을 1자루씩 손에 든 우리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 처음 나가는 병사 마냥 어딘가 어설퍼 보였다. 하지만 ‘전쟁’에 들어가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 우리의 눈빛과 자세는 180도 달라졌다. 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곳곳을 누비는 용감한 원생부터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숨어 적의 뒤를 노리는 원생까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역사 속 수많은 전쟁,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달았다. 짧았지만 치열했던 2시간의 서바이벌 게임은 삶의 근원이 되는 생존본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팀스포츠허(3): 컬링



2015
0605

빙판 위에서 공동체를 배우다

서재
최시환

새하얗고 차가운 빙판 위, 내 손을 떠난 스톤은 조용히 빙판 위를 달려가 팀 전체가 원하는 위치에 자리잡는다. 모두가 환호하고 손뼉을 친다. 내가 던진 스톤은 ‘나의 것’이 아니다. 팀을 위한 방패가 되기도 하고, 상대의 돌을 쳐내는 희생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공동체를 배운다.

처음 빙판을 보았을 때는 살짝 긴장됐지만,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빙판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하나하나씩 컬링에 대해 배운 후 진행한 미니게임은 모두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스톤이 가지 않아 힘들었지만, 팀원들과 의논하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차츰 감을 잡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완전히 컬링에 빠져있었고, 컬링 수업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아쉬웠다.

함께 땀을 흘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은 항상 우리를 단결시킨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속삭여 준다. 컬링을 통해 원생들이 다 시금 ‘우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자치회



우리의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

서재
장은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매주 한 번 열리는 자치회는 교수님과 선생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생들을 위한, 원생들만의 것이었다.

대표 선출부터 생일파티까지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고,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는 자치회는 원생들이 여느 수업 시간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발언을 원하는 모든 원생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집중을 늦출 수 없었다.

자치회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와 눈빛,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함께 여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우리들의 논의 방식이 효율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을 통해 배웠다.



2015
0428

아산 플레넘 2015



2015
0429



국제외교행사 아산 플레넘과 함께 하다

서재
윤나호

국내외 외교 및 안보 분야 최고 석학들이 모이는 국제콘퍼런스를 참관할 뿐만 아니라 그 진행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부푼 마음을 안고 서른 명의 원생들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장차 언론인이 되길 꿈꾸는 내게 기자실 안을 가득 채우는 타이핑 소리, 실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문가의 말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기자들의 모습은 큰 인상을 남겼다.

회의장에서는 최고 석학들이 한 주제에 대해 깊게 나누는 대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는 토론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모두 처음 경험한 큰 국제적인 행사 아산 플레넘 2015, 그 행사의 시작과 끝에 우리 아산서원 제7기가 함께 했다는 감동은 언제까지나 마음 속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국회의사당 방문



2015
0703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 국회를 가다

서재
윤나호

7월 햇살이 뜨거운 금요일 아침, 원생들은 국회와 정부, 정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여의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부푼 기대를 하며 도착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투어와 함께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원생들의 지식이 펼쳐졌다. 작게는 지금의 국회가 있기까지, 크게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는지 느껴져 새삼 숙연해졌다.



이어진 국회의사당 본관 견학은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보던 국회와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수많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회의장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나타내듯 거대했다.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 느껴지는 한편, 아산서원 원생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 국회 방문을 통해 원생들 모두가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산서원 제7기 졸업식





Asan Washington Fellowship Program

Washington DC 인턴십 수기

Friday Program 수기



American Jewish Committee(AJC)는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유대인 인권 문제를 필두로 글로벌 고위급 외교를 폭넓게 수행한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AJC는 미국 내에 22개, 세계적으로 30여 개가 넘는 지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동재
박 성 규

AJC와 함께, 외교전쟁의 한복판에 서다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유대인들, 그들의 결집이 어떤 양상인지 궁금했던 나는 AJC에 지원했고, Asia Pacific Institute 부서에 소속되어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콘퍼런스 참여와 제70회 유엔총회 기간에 맞춰 각국 대표들과의 회의 일정 조율 등 기대 이상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

흔히 비영리 기관이라 하면 ‘좋은 일은 하지만 힘이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을 만나 이스라엘-미국 동맹지지, 유대인의 권리 증진 등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AJC의 힘과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AJC에서의 인턴십은 나에게 ‘외교’라는 행위가 공무원들의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외교정책이 절실한 한국의 민간 차원의 외교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인권단체로 유엔 세계 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비정부 기관이다.

동재
최 은 서

인권을 위한 순도 100%의 희망

유난히 추웠던 비 내리는 가을 저녁,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온 봉사자들이 유럽 난민의 인권을 위한 거리 시위를 위해 모였다. 덜덜 떨며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본 곳에는 함께한 농아 봉사자들이 있었다. 내가 “Rights for Refugees!”를 외칠 때 그들이 수화로 따라 ‘외치는’ 모습. 그것은 여태껏 본 어느 장면보다 깊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가장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부터 유엔의회까지, Amnesty International은 다양한 장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더는 전쟁, 굶주림, 두려움으로 고통 받지 않고 인종, 피부색과 이념 때문에 의미 없이 갈라져 서로 싸우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이곳에서 매일 아시아 각국의 인권 문제를 정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등의 국제기구를 공부하며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넓은 아시아가 있고, 내가 무심히 외면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인권 침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mnesty Yellow라고 불리는 엠블럼의 샛노랑색은 세계 각처에 일어나는 인권 사항의 긴급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는 희망을 상징한다. 나는 그간 우리 세대에 전염병처럼 번진 세상과 인간에 대한 냉소를 그저 안타깝게 바라만 보았지만, 어두운 사안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힘껏 싸우는 운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 밑바닥에서도 희망을 꺼내는 방법을 배웠다. 비 오는 그 날 보았던 봉사자들의 수화처럼, 강렬하지만 솔직한 몸짓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 나는 사람을 향하는 그 꿈을 다시 꾀다.



Atlantic Council

Atlantic Council은 국제안보와 세계경제 번영 및 미국과 아틀란틱 연합의 리더십 발현을 위한 각종 국제이슈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동재
고 주 영

나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곳

Atlantic Council은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기관 특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다. 몇 년 전부터는 'Working Together to Secure the Future.'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연구 분야를 넓혀, 워싱턴 DC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다양한 국적과 경험을 가진 스태프들이 모여,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

기관의 핵심 키워드가 'Future' 인만큼 Atlantic Council은 인턴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Networking Program, Lecture, Career Session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나는 Brent Scowcroft Center on International Security의 Asia Security Initiative에 배정되어 있으면서, 아시아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하는 리더십 프로젝트 기획도 도왔다. 이곳에서, 나는 단순히 인턴이 아니라, 나의 열정을 보답받고, 나의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었다.



서재
이 신 영



Atlas Service Corps는 2006년에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혁신과 협력, 21세기 과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관이다. Atlas Service Corps는 사회공헌 분야의 리더가 되고 싶은 인재들에게 약 12 ~ 18개월에 걸쳐 미국 내 선진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tlas Service Corps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 인권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 구호시스템의 폐해를 해결하고,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Atlas Service Corps가 9년간 쌓아 올린 결과를 보는 것은 나에게 정말 뜻깊은 일이었다. 훌륭한 사람이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은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의 중요한 표지가 될 것이다.

'Talent is equally distributed, but opportunity is not'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지만, 기회는 그렇지 않다는 Atlas Service Corps의 구호는 기관의 CEO이자 설립자인 Scott Beale이 오랜 해외 생활에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각지에 퍼진 재능이 세계무대에서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관은 능력 있는 세계의 인재들을 모집하고 인력이 필요한 현지 기관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EIP는 1910년에 설립되어 국가 간의 협력 증진과 국제평화 촉진에 기여하는 연구와 출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사인 워싱턴 DC뿐 아니라 모스크바, 베이징, 베이루트, 브뤼셀에 지사를 둔 글로벌 싱크탱크이다.

서재
차 민 경



CEIP를 통해 세상을 보고 공학도로서 사회를 그린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CEIP는 명성에 걸맞게 중동 문제, 핵 비확산 문제, 한미동맹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인문교육과정을 통해 공대생으로서 그동안 도외시했던 사회의 내면을 맛본 나는 다채로운 주제의 콘퍼런스 진행을 도우며 지금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성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내가 CEIP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인문교육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판옵티콘, 자본주의와 같은 개념을 맛보고 고민했던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Nuclear Policy Program에서 내가 맡았던 한국의 핵 관련 정책 조사가, 공대생으로서 전공지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핵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과학기술이 기저에 깔린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그동안 순수 과학기술로만 보았던 것들이 어떻게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중국, 남아시아 등 다양한 부서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은 서로 달라도, 남중국해나 미국 대선 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 속속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던 동료 인턴들은 나의 다짐을 돌아보게 해 주었다. 한없이 친근하고 다정하다가도 자신의 전문 분야인 중국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그들을 보며, 공대생으로서 관련 분야는 달라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자유를 꽃을 피우다

Cato는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이슈에 대해 콘퍼런스를 여는 큰 규모의 싱크탱크이다.

정책을 통하여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싶은 꿈을 가진 나는 이 곳 Cato에서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정책화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ato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와 강의를 들으며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역할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기도 했다. 30여 명의 인턴 친구들과 서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누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유익한 경험이었다.



동재
신 유 리

CATO INSTITUTE

18세기 영국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서한 모음집 *Cato's Letters*에서 그 이름을 따온 Cato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립된 비당파적인 싱크탱크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연구원들을 보며, 나 역시도 신념을 위해 일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다지게 되었다.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CIPE)는 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1983년에 설립된 이래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동재
김 기 령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연결고리

CIPE는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수준을 향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다. 얼핏 경제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연관성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정보 접근성, 기업가 정신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내가 근무한 아시아 부서는 구성원 수에 비해 꽤 많은 국가를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민주주의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각 나라의 특징에 맞게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준비를 돕거나, 매일 아침 아시아 국가들에 관한 뉴스를 정리하면서 각 국가의 배경과 과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아시아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앞으로 각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며 아시아의 미래를 엿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서재
최 시 환



가치를 추구하는 힘, 미국의 힘

시장경제 체제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CIPE의 목표를 보며, 출근 전부터 내 마음속에 자리잡았던 물음이 있었다. 어떻게 미국은 그들과 긴밀한 관계도 아닌 개발도상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을까?

CIPE의 Global Team에서 받은 나의 업무는, 세계 각국의 부패 관련 기사를 정리하는 것과,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여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정치 문제, 부패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CIPE가 추구하는 가치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나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전 세계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세계최강대국인 미국의 자신감이고 힘인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이, 미국이 가진 힘의 원동력이자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SI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1962년에 설립된 이래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 국제기구와 민간 영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서재
김재영



이상이 아닌 현실을 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CSIS는 각국의 유명 석학, 장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층의 유명 인사와 함께 하는 콘퍼런스로 유명하다. 이 콘퍼런스는 미디어 회사이자 하나의 부서인 iDeas Lab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독특하게 대중과 공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콘퍼런스 참가자의 약 2배에 달하는 1,000여 명이 함께 콘퍼런스를 볼 수 있다.

5개월 동안 나는 이 부서에서 60개 이상의 콘퍼런스를 촬영하며 카메라를 통해 18,000명을 CSIS와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정책 공론의 장이 사람들의 이상 속 소수의 권위를 세워주는 곳이 아닌, 기술을 통해 모두가 공유하는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탈바꿈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되어 보면서, 정책은 결국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기에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대를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CSI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태평양 건너에서 동북아 바라보기

매년 약 3,000여 개의 콘퍼런스가 열리며 한국, 중국, 유럽 등 각 지역과 인권, 사이버 안보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CSIS는 가히 국제무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나는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이신 Victor Cha 교수님께서 개설하신 Korea Chair에서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CSIS에서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각국에서 온 70명의 인턴과의 교류였다. 나는 헬싱키대학교에서 온 친구와 종종 점심을 함께 먹으며 한국과 핀란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독립, 내전, 세계대전 등을 거친 핀란드와 우리의 근현대사를 비교하며 지난 한 세기를 다시 반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의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미국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전염병과 국가 안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국제보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CSIS에서의 인턴십은 내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재
이하형





CNI는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전 미 대통령이 1994년에 설립한 중립적 성향의 비영리 기관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재
배 윤 주

깊이 읽고, 넓게 나누다

CNI는 전통적인 미국 공화당 성격을 가진 기관이다. 나는 매일 국제 관계에 관한 조사를 한 후, Daily digest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쉽지 않았지만, 업무를 위한 수많은 자료 조사와 상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나만의 Daily digest가 쌓이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통찰력도 하루하루 쌓여갔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THE NATIONAL INTEREST*를 통해 공화당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배울 수 있었다.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인턴과 토론하며 배움을 더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곳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삶의 크기를 넓혔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이곳에서 나아간 작은 발걸음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더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동재
백 민 성



EWC는 1960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 학자들을 초청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미국과 해당 지역 국가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持續)과 반추(反芻)

미국과 태평양 연안의 화합을 도모하는 EWC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묵묵히 제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EWC는 굼직한 현안들에 대하여 동서양 양방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꾸준히 연구하여 정기물을 발간하고 있다.



나의 업무는 Asia Matters for America라는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한국의 여러 문제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한국인의 입장으로만 편협하게 바라보았지만, 차츰 시야를 넓혀 미국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수월히 기사를 작성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워싱턴 DC에는 수많은 싱크탱크가 있지만, 그 속에서 EWC가 제 위치를 분명히 지키고 있는 이유는 뚜렷한 목표 설정을 통한 지속(持續)과 반추(反芻)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WC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었다.



서재
백서영



EWC는 1960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 학자들을 초청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미국과 해당 지역 국가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미국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EWC 워싱턴 DC 지부에서 나는 Asia Matters for America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국과 아시아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다.

국제관계를 공부하지 않은 내가 동서양 간 교류의 중요성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주제를 선별해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미국과 아시아를 다루는 수백 개의 뉴스 가운데 유의미한



기사를 선택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상사에게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으며 기사를 보는 안목과 분석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좋은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EWC에서 일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스태프와 인턴들 모두가 아시아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관심과 열정을 모아 연구기관을 세우고, 미국-아시아 교류의 튼튼한 발판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Foreign Policy Initiative(FPI)는 비영리 싱크탱크로 미국의 외교, 경제, 군사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고 민주주의 동맹국과의 협력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서재
김선희



부딪힌 만큼 보인다

초당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FPI는 국제무대에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해치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미국의 경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하나의 기조 아래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이곳 FPI에서의 인턴ships을 통해 나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에 대한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매일 연구 보고서나 신문 기사를 읽으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정세를 읽



을 수 있는 눈이 길러졌던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책 결정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노력과 강대국 간의 권력 경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국제관계와 실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 등, 워싱턴 DC에서 배우는 외교는 이론으로 접하던 외교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현실적인 합의로서의 정책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수많은 콘퍼런스와 청문회에서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내는 학자들과 함께 나라의 미래를 고민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자본주의 등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 하지만 체감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차이점이 한국과 미국을 각기 다른 사회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5개월간의 인턴ships은 그 차이점을 직접 느끼면서 나만의 우물을 깨고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1982년에 설립된 KEI는 한국과 미국의 학문 및 정책 커뮤니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서재
황 정 윤

새롭지만 익숙한, KEI

KEI는 1982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워싱턴 DC 연구소이다. KEI에서 내가 맡은 일은 인턴 세미나에서 각자 관심 있는 이슈를 브리핑하고, 기조연설문을 작성해 보는 것이었다. 또 한미 양국의 인구통계학적 수치를 인포그래픽으로 비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콘퍼런스에서 연구원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KEI에서 나는 내 보금자리가 아닌 동북아 중심국으로서의 한국을 마주할 수 있었다. 해외 석학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접하며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워싱턴 DC 주재 연구기관의 아시아 지부와 협력하며 작은 한국을 경험했다. 당연히 여겨온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안경이 생긴 것이다. 낯선 워싱턴 DC를 떠나 다시 익숙한 곳,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나는 이 안경을 벗어 던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 같고 닮아 한국 사회를 맑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재
김 민 성



New America는 1999년 설립된 비영리, 초당파적 싱크탱크로 21세기 미국이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며 외교정책, 안보, 교육 및 IT 분야를 다루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야.” 내가 New America의 인턴십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놀랍게도 이와 같다.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사물인터넷까지 언제 어디서나 손가락 하나로 수만 가지 일을 처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면, 사이버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을 부정하기 어렵다.



IT 선진국일수록 사이버 테러 취약성이 커지는 역설(逆說)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사이버 보안을 중요히 다뤄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力說)한다. 인턴십 기간 유심히 살펴본 한국의 사이버 보안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까움은 개선의 여지를 찾아,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호기로운 목표를 심어 주었다. New America에서 나는 당돌하거나 자칫 무모할 수도 있는 이 도전에 임할 용기를 얻었다.





G | M | F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STRENGTHENING TRANSATLANTIC COOPERATION

GMF는 정치, 경제, 외교, 에너지 등 대서양 국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과 이해를 도모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이다.

서재
윤 나 호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를 비추다

GMF는 유럽과 미국 간의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싱크탱크이다. 처음에는 유럽과 미국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으나,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분야를 다루는 만큼 잘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내가 근무했던 Asia Team에서는 다방면의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의 변화가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특히 각종 미디어에 따라 다르게 비추어지는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우리가 워싱턴 DC에 있는 동안에는 TPP가 통과되었는데, 각종 신문사의 보도를 비교 분석하며 TPP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콘퍼런스나 포럼 등의 행사 기획을 도우며 평소 만나기 힘든 석학들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GMF에서의 인턴십은 아산서원에서 했던 모든 경험 중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STIMSON

The Henry L. Stimson Center(Stimson Center)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장관이었던 Henry L. Stimson의 신념을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실용적인 국제문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싱크탱크이다.

동재
윤 동 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든 직원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행사에 있었다. Cupcake Competition, Halloween Pumpkin Contest 등 하루 종일 진행된 행사에 사람들이 진심으로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작은 모임이 가질 수 있는 힘을 실감한 것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잘 하는지 먼저 알아주고, 응원하며 도와주는, 사람의 힘이 있는 곳. Stimson Center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내 꿈에 힘찬 응원이 되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관

첫 출근 날, 나의 전공과 관심사를 물은 담당자는 Administration 부서로 나를 다시 배정 해주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기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 업무 참여도 활성화와 직원 평가 제도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가 업무로 주어졌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사람들이 서로 장점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timson Center는 사람이 우선이고, 중심이 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1973년에 설립된 The Heritage Foundation은 미국 내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 중 가장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 작은 정부 및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관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기관이다.

동재
김 종 태



뚜렷한 원칙과 비전

내가 5개월간 몸을 담았던 The Heritage Foundation의 가장 큰 매력은 명확한 원칙, 그리고 비전이다. 기관의 홈페이지와 건물에서는 ‘free enterprise, limited government, individual freedom, traditional American values, and a strong national defense’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본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정면에 ‘Building an America where freedom, opportunity, prosperity, and civil society flourish’라는 비전을 볼 수 있다.

내가 배정된 곳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경제, 군사, 안보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다루는 Asian Studies Center(ASC)였다. 이곳에서 나의 주 업무는 특정 주제에 관련된 기사, 논문을 검색해 자료를 정리하거나 이벤트 보조, 기사 번역, 뉴스 업데이트 등을 하는 일이었다.

ASC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럽지만 강한 직원들이다. ASC의 직원들은 웃는 얼굴로 대화하고 유머를 잊지 않으며 질문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대답해준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서 항상 전투적으로 일하며 정확한 근거에 기반을 둔 주장을 적재적소에 전달한다.

확고한 원칙과 비전, 그리고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The Heritage Foundation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반열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 또한 이곳에서 그들 중 하나가 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서재
윤 인 경



그리도 가까운 것들이었음을

The Heritage Foundation에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 ‘이념이 현실에서 형상을 갖춘다면 과연 이렇겠구나!’라며 무릎을 탁 쳤다. 우리 기관은 ‘보전하고 지킴’을 의미하는 보수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권력의 남용을 삼가고, 집단이 업신여겨온 개인의 존재를 살피는 것이 바로 기관의 존립 목적이다. 이를 건물 외벽의 웅장함이, 내벽의 우아한 색감이, 그리고 강직하고 자애로운 동료들이 또 말해주었다.



지금껏 한반도 밖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나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기관의 Asian Studies Center(ASC)에 있으면서 아시아 남부에 있는 미얀마, 파키스탄 등 인구 규모나 국토 면적에서 결코 도외시 될 수 없는 나라들의 내정을 살피며 시야를 넓혔고, 주변국과 한국의 관계를 연구하며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단순한 논리로 엮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나는 그간 이질적으로 여겨왔던 문제가 실은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배우며 힘껏 고민해볼 수 있었다.





Hudson은 국제안보와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자유 증진을 지향하는 독립 싱크탱크이다. 특히 국방, 국제관계, 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각종 출판, 콘퍼런스, 정책 브리핑 등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정치경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미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재
조 홍 재



서재
장 은 우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Advancing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U.S.-Asia Relations

미국-아시아 관계 증진에 있어 두드러진 활약을 했던 Mike Mansfield 전 상원의원과 그의 부인 Maureen의 정신을 기려 설립된 Mansfield Foundation은 미국과 아시아 관계에 있어 국가 및 국민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독립적인 싱크탱크이다.



매주 선임연구원들이 인턴들에게 자신의 연구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유익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Hudson의 Kenneth R. Weinstein 소장님이셨다. 방황했던 젊은 시절부터 지금의 자리까지 순탄치 않았던 자신의 삶을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이야기하는 소장님의 모습은,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도 돌이켜 생각하게 만들었다. 스스로 찾고, 문을 두드리던 이 귀중한 경험은 앞으로도 내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It’s up to you!”

기회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Hudson이 인턴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It’s up to you!” 인턴들에게 정해진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주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목록을 제공해 인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 것이다.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는 수단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가 어떻게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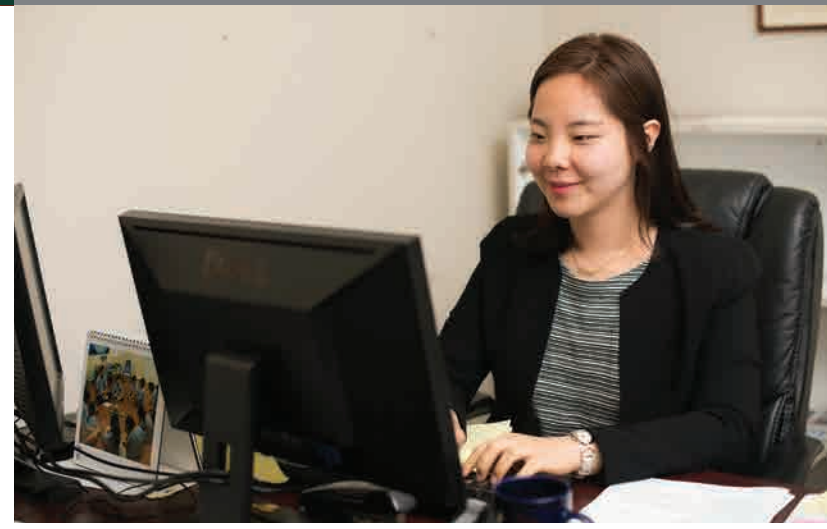


Alone, yet Together

Mansfield Foundation 워싱턴 DC 지부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지만,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실 있는 기관이다. 작지만 영향력 있는 이곳에서 나는 5개월간 자연스레 녹아들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진행하는 기관의 원동력은 사람들의 자부심과 열정,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있었다. 경영학을 전공한 터라 국제관계와 관련된 일이 생소하고 어려웠던 내가 질문하면 언제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었고, 매주 진행되었던 회의에서는 시간에 개의치 않고 각자 맡은 일의 진행사항을 나누고 그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했다.

길지 않은 인턴십 기간을 통해 배운 것은 외교정책, 혹은 폭넓은 역사인식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뿐만은 아닐 것이다. 각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같이 일할 수 있음을 보며 나는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웠다.





동재
조 정 민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Robert F. Kennedy Center for Justice & Human Rights (RFK Center)는 Robert F. Kennedy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인권 증진을 통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 속에서 권리를 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에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RFK Center는 지식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 나는 주로 워싱턴 DC 정부와 싱크탱크의 관심사, 북한 인권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키는 일을 맡았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러 동료의 도움으로 하나씩 마무리할 수 있었다.

법 속에 권리를 보고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 국제와 국내를 아우르는 열정. 어쩌면 당장 자신과 관련 없는 지역과 사람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RFK Center 변호사와 직원들을 보며,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이 곳에서 내가 일했다는 것은 축복의 증표이고, 내 소명의 시작이다.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HR NK)는 북한 인권의 신장을 위해 외교 및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기관으로 북한 세습 독재정권의 인권탄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식량분배 왜곡, 탈북난민의 어려움 등을 다룬 연구와 출판이 주된 활동이다.



책임은 무겁게, 목소리는 더 높게

HRNK 첫 출근 날, 내 책상 위에는 『북한의 숨겨진 수용소』와 같은 무거운 주제의 책이 여덟 권이나 놓여져 있었다. 북한 인권은 내게 생소한 주제라 걱정이 됐지만 일주일의 교육기간 동안 HRNK에서 발간한 다양한 서적을 읽으며,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와 탈북자 인권 문제가 생각보다 내 삶과 가깝게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을 바로 앞에 두고도 무관심했던 나를 반성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



동재
권 송 이

다. 인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한국,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방면에서 어떻게 북한 인권을 위해 협력해야 할지 또 한국 대학생인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HRNK에서의 경험들은 북한의 정세와 인권 침해 현실에 대해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Wilson Center)는故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미국 의회가 1968년에 설립한 정책기관으로 외교, 안보, 냉전사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지식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나는 역사적 순간이 담겨 있는 원문을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 기록, 한국을 바라본 미국 정보부의 보고서, 대통령들끼리 주고받은 서신을 보는 작업은 단순히 역사 속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만나는 감동에서 끝나지 않았다. 태평양을 넘나들던 그 기록은 미국인으로서 혹은 한국인으로서 서로 완전히 다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었고,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아산서원에서 열띤 토론을 나누었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서재
고민정

기록을 통해 '나'를 만나다

Wilson Center에서 나는 다양한 북한 자료를 정리하거나 한미 관계 전문가들이 모인 콘퍼런스, 매주 저명한 저자를 초청해 토론하는 Washington History Seminar의 행사 진행을 도왔다.



아이는 자신과 타인이 다름을 인식하며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낸다. 학자들의 토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Wilson Center의 일부가 되어 나는 마치 아이처럼 낯선 이들의 눈을 통해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었다.

서재
박솔지

과거로의 한 걸음을 통해 지평을 넓히다

‘Cable, General James A. Van Fleet to Syngman Rhee / 1955-07-14’ Wilson Center 출근 두 달째. 처음에는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오갔던 전보나 편지를 정리하는 것이 마치 대통령을 마주하듯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 문구가 익숙해질 만큼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눈앞에 펼쳐진 60,000건의 문서는 종종 지루하기도 했지만, 매일 1950년대로 돌아가는 걸음마다 숨겨진 역사 조각을 찾아내는 설렘이 있었다.

북한 국제다큐멘터리 부서의 ‘과거를 여행하며 현재를 진단한다.’는 모토는 그동안 현재와 미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역사 공부를 게을리한 내 사고의 지평을 한 뼘 더 넓혀주었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 정책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것이, 미래를 향해 올바른 걸음을 내딛는 기반이었던 것이다. 온고지신,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일깨워준 Wilson Center에서의 하루하루가 즐겁다.



서재
김 선 희

중동, 아랍의 봄, 이란 핵 협상, 그리고 ISIS까지. 미국의 핵심 이익이 중동에 걸려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는 워싱턴 DC에서, 중동 전문가이신 Ellen Laipson 소장님의 첫 번째 특강은 그간 쌓여왔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소장님께서 강의 내내 이란 핵 협상 타결은 현 정부의 역사적인 외교 성취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역설하셨다.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단호한 소장님의 어조에서 현 정부의 조언자이자 자신의 신념에 의거해 행동하는 협상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ISIS에 대한 주장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국제관계 학자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Ellen Laipson, Stimson Center 소장님 특강
미국 對 중동 외교의 중심에서



비록 강의는 짧았지만 중동 지역의 외교경험이 녹아 있는 소장님의 강의는 미국과 중동의 관계 이상의 것을 느끼게 해 주는 시간이었다. 날카로운 지성을 지닌 학자와의 만남은 원생들에게 남은 4개월간의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Mario Rossero, Kennedy Center 교육부 부회장님 특강
Kennedy Center, 예술 교육의 길을 보다

서재
최 시 환

건물을 둘러싼 큰 열주, 높은 천장과 눈부시게 빛나는 크리스탈 장식, 유명 예술 작품으로 꾸며진 Kennedy Center를 둘러보며 그 웅장함에 위압감과 거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강연과 투어 이후, 이 기관이 그 어느 곳보다 대중과 밀접히 소통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Kennedy Center는 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게 하고, 교육 후에는 각자의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더욱이 이러한 교육의

기회는 계층에 구애 받지 않고 다수의 일반 학생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강연과 투어가 끝나고 나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다양한 문화, 인종,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속의 오래된 질문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예술이 사회와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엿볼 수 있었던 Kennedy Center는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Douglas H. Paal, CEIP 부회장님 특강
역사 속 인물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듣다

서재 고민정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Ronald Reagan 전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Douglas H. Paal 부회장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역사 속 인물을 직접 만나는 것처럼 설렜다. 미국 외교문서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부회장님께서는 아시아 역사와 국제관계에 대해 박학한 지식을 가지신 실무 행정가로 저명한 분이시다.

부회장님께서는 2008년 경제위기에도 흔들림 없었던 중국의 경제와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 중국의 모습을 통시적 측면에서 신선하게 분석해주셨다. 이어 2015년 후반 한중일 정상의 방미에 대해 유창한 중국어와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 이야기해주시는 모습에서는 실무 행정가의 노련함이 엿보였다. 과거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

기는 부회장님께서 과거의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계심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분야에서 활약해 오신 Douglas H. Paal 부회장님과의 오찬은 이제 막 워싱턴 DC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미국을 만나고 있는 원생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던 유익한 경험이었다.

동재 조정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시각이 보편과 상식이라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타인과의 대화는 나와 다른 생각을 듣고, 이는 곧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이는 국제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다룬 Sydney Seiler 특별보좌관님의 강의를 통해 한국을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미국과의 협력, 대북정책 등에 대한 원생들과 연사님의 거침없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새로이 한국의 정세를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북한 인권 업무

를 하는 나로서는 앞으로의 업무 방향을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단순히 동아시아 경제 전문가에 머물지 않으시고, 정책 결정자로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활동하시는 특별보좌관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전문가가 지녀야 할 자세를 배웠다. 이번 특강으로 넓혀진 우리의 생각과 다져진 열정은 앞으로 워싱턴 DC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Sydney Seiler, 미 국가정보국 특별보좌관님 특강
한국과 북한을 향한 미국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역할



동재
김 종 태

‘The world’s largest repository of knowledge and creativity’.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의 보고라는 수식어가 표현해주듯 수많은 조각상과 벽화로 가득 차 있는 The Library of Congress는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원생들을 맞아주었다. 곳곳에 각 학문 분야마다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서구 문명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압도적인 양의 자료를 가진 The Library of Congress는 ‘모든 자료는 미국에게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진 Thomas Jefferson의 Leadership과 그의 뜻에 응한 사람들의 Followership의 조화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나는 통일, 이웃 국가와의 외

교마찰, 청년 실업 등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Leadership과 Followership이라고 생각한다. 도서관을 나오며,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Leadership과 Followership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The Library of Congress 방문
Leadership과 Followership



Cato Institute 문화교류
새로운 관점에서 의료 제도를 논하다

서재
조 홍 재

시작 전부터 많은 기대를 했던 Cato Institute 문화교류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주장하는 Cato Institute 보건정책연구담당 Michael Cannon 국장님의 강연과 인턴들과의 교류로 이루어졌다.

강연을 듣기 전, 건강히 살 권리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오바마케어 폐지론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의료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는 개인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는 그의 기본 전제는 충분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이후 Cato Institute의 인턴들과 함께 강연의 내용을 비롯한 여

러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Cato Institute 문화교류에서 얻은 것은 좋은 강연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뿐만이 아니었다. 한동안 깊은 고민에 잠기게 한 그들의 신선하고 또 충격적인 주장은 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주의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만들어 주었다.



White House 방문
흰 돌로 구현된 국가의 이상(理想)과 그 이상(以上)

동재
최은서

쾌청한 하늘의 가을 날씨가 눈부셨던 날, 원생들은 미국 패권의 상징인 백악관에 설렌 마음으로 도착하였다. 가지런한 열주를 지나 백악관에 들어서니 합리주의적 미학에 바탕을 둔, 정연하고 명확한 식양에서 미국의 이상을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영부인들의 취향으로 장식된 방들과 복도에 갖춘 대통령 초상화, 일상의 사진들은 거대한 상징성에 가려져 새삼스레 들추어야 하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백악관을 그려볼 수 있게 하였다.

한 건축가는 건축을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장소로 번역하고,

시간의 연속성을 공간으로 담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백악관을 거닐면서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근엄한 대통령들의 인간적인 내음을 맡을 수 있었다. 인간으로, 그러나 미국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삶을 녹여내며 역사를 만들어내는 곳. 그렇게 백악관은 미국인의 집으로, 그리고 자유롭고 거대한 국가를 이루겠다는 태초의 꿈의 상징으로 미국의 역사와 국제사회 속 위상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었다.

서재
박솔지

“글쎄, 2마리를 입양하려 했는데 10마리가 왔지 뭐야.” 모두 거실에 동그랗게 모여 앉아 Annie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Eagle Hill Farm 방문을 시작했다. 전쟁에서 다친 말들을 돌보았던 Steve와 그의 아내 Annie는 10여 년 전 12마리가 넘는 말을 우연히 돌본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100여 마리도 넘는 말들이 Eagle Hill Farm에 함께 하게 되었다.

드넓은 대지, 노랗게 물든 숲과 여기저기 노니는 말들. 그림같이 펼쳐진 풍경보다 더 멋있었던 것은 바로 농장을 일구어 온 Steve와 Annie의 ‘즐거움 헌신’이었다. 농장을 돌아보며 말에 붙여진 이름과 그들의 사연을 소개하시는 모습은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았고, 따뜻하게 말을 바라보는 그들을 보며 우리 마음 또한 따뜻해졌다.



다친 채 처음 농장에 도착했던 말들은 부부의 정성으로 이제 사뭇 능륜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Eagle Hill Farm 방문은 농장을 돌아보며 그저 말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들을 위해 그 곳을 가꾸어 온 노부부의 즐거움 헌신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Eagle Hill Farm 방문
말을 향한 즐거운 헌신



서재
황 정 윤

출발하기 전, 오랜만에 원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황금빛 단풍이 가득한 Shenandoah Valley로 떠나는 문화기행은 반가운 모습 때문인지, 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무척 설렘. ‘서로에게 주는 휴식시간’이라는 문화기행 기획팀의 모토가 담겨 있는 2박 3일 일정은 정말 즐겁고 여유로웠다. 스카이 드라이브의 멋진 풍경, 경쾌한 음악과 눈 앞에 펼쳐진 울긋불긋한 숲의 모습, 루레이 동굴, 와인 공장 견학을 통해 버지니아 지역 곳곳의 매력을 알 수 있었다.



Shenandoah Valley 문화기행
알고 사랑하니 기쁘지 아니한가



첫날의 하이라이트였던 ‘요리 경연 대회’에서 선보인 김치찜, 닭갈비 등의 다양한 요리, 셰익스피어 극장 공연 관람과 캠프 파이어 역시 워싱턴 DC의 화려하고 바쁜 모습을 뒤로 하고,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미국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알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술 작품뿐이겠는가. 사람도 도시도, 각자 지닌 매력을 알게 되면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된다. 이번 기회로 원생들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Asan Academy Networking Mixer 개최
한국 문화로 '놀다'

서재
고 민 정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심리극에서는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 다 같이 '놀이'를 하면서 위밍업을 한다. 몸을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한창 바빴던 워싱턴 DC의 싱크탱크가 한 숨 돌리던 때, 원생들이 준비한 행사인 Asan Academy Networking Mixer의 주제가 '놀이'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오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는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이나 미술을 구경하다가 끝난다. 하지만 사물놀이에서 시작해, 서예, 오목,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놀이로 뽀뽀하게 채워진

우리의 행사는 Stimson Center를 다같이 먹고, 마시면서 허물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단순히 아산서원 원생들과 그 동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것을 설명하고, 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이다. 돌아가는 동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아산서원 원생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서재
김 재 영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열렬한 삶의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자 해도 결국 비참한 현실과 추락한 명예는 변함이 없고, 죽는다 하여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현실에 존재한다. 하지만 대상을 '개인'에서 '사회'로 바꾼다면, 개인의 죽음을 '회피'와 '도망'이 아닌, '희생'과 '추모'라는 생사를 초월한 가치로 승화할 수 있게 된다.

'Freedom is not Free.' Veterans Day를 맞아 찾아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는 자유에 대한 인간의 숭고한 열망과 자유 조차 희생이 필요하다는 비참함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자유'

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보존하고자 노력한 이들과, 이를 묵묵히 추모하는 사람들을 통해 '죽음 뒤에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험릿의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분명 희생을 강요한 사회와 현실은 비난받아야 하겠지만, 머나먼 이국땅에서 이름도 모를 타인을 위해 '자유'라는 가치를 선사한 이들의 의지는 '희생'으로서 명예롭게 추모돼야 할 것이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방문
삶과 죽음을 초월한 가치



서재
차 민 경

음악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그려내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을까. 새까만 저녁 하늘 아래 특유의 웅장함을 뽐내는 Kennedy Center 앞에 기대에 가득 찬 원생들이 모였다. Alfredo Casella, Sergei Prokofiev, Sergei Rachmaninoff, 20세기 대표 작곡가 3명의 곡을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2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며 황폐해진 마음, 혼란, 슬픔을 고스란히 담아 냈다.

난해한 부분도 다소 있었지만, National Symphony Orchestra의 서정적인 바이올린 선율은 왠지 모르게 구슬픈 느낌을

전달하며 연주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열정적인 지휘자의 깔끔한 지휘와 단원들의 훌륭한 연주를 들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긴장하며, 환희를 느꼈다. 인턴십의 반을 끝낸 이 시점, 공연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우리의 가슴 한 켠에는 지친 우리를 푸근히 반겨주었던 Kennedy Center의 모습과 우리의 고단함을 치유해준 아름다운 선율이 따스하게 자리 잡았다.

National Symphony Orchestra 공연 관람
음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다



KEI 모의 6자회담 참여
서로 다른 이해들을 고민하고, 설득하다

동재
권 송 이

KEI 모의 6자회담에 참여하며 우리는 6명씩 그룹을 지은 후 각자 일본,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측 입장이 되어보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넘어, 그동안 우리가 워싱턴 DC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서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내 생각의 주인으로서 뚜렷하게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해 보았는지,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하고 양보하는 과정의 순간순간에, 정말 전문가가 된 듯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각국의 입장과 다자 간의 이해관계를 경험한 소중한 기회였다. 일 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인문교육기간을 거치며 사소한 의견 하나하나 모두 깊이 있게 주고받았던 동기들과 함께 한 자리였기 때문에, 더 팽팽한 긴장 속에서 '회담'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말 6자회담의 주인공이 되어 행동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던 기회였다.



Asan Beijing Fellowship Program

Beijing 인턴십 수기
Friday Program 수기



기금회중심망(China Foundation Center, CFC)은 중국 내 사회적 재단 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재단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공공 자선 단체이다. 기금회중심망은 중국 내 사회적 재단의 재무 상태, 공익 사업 현황, 기부금 등을 공개하여 재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동재
성 예 은

중국의 따뜻한 마음을 읽다

CFC의 하루는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함께 담소를 나누며 아침을 먹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 같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맡은 일을 시작하는데, 나의 주 업무는 기금회 정보를 기입하고, 매주 설립된 기금회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며, CFC에서 자체 발간한 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생소하기만 했던 기관이지만, 5개월간 일을 하며 나는 기금회가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나가는지 큰 그림은 물론, 세세한 길 하나하나까지 살펴보며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중국 기업과 개인의 따뜻한 기부의 손길을 직접 기록하며, 급격한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챙기는 중국인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



따뜻한 중국인들의 마음과 CFC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기부 문화는 분명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우리나라에도 기부 문화의 정착과 함께 재단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했다.



동재
정 효 린

CFC, 중국 자선사업의 신기원

CFC는 고속 성장이 야기한 중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기금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 통계화하여 공신력을 제고하는 공익 플랫폼이다. 또 자선단체의 특성상 재정 투명성이 곧 공신력과 모금능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30여 개의 기금회가 연합 발족한, 일종의 자율감찰기구이기도 하다.

CFC에서 나의 업무는 기금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씬밍탕(新名堂)이라는 이름의 주간 게시물이었는데, 이는 무려 5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의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에 매주 게시하는 게시물이었다. 기금회 산업의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일반인들이 기금회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막중한 임무였지만, 내게는 신선한 경험이기도 했다.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많은 연구자료와 데이터들과 마주했다. 추상적이던 기금회 산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명확해지는 과정을 겪으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기도 했다. 현상에 대한 엄격한 분석과 일목요연한 보고서가 없다면 문제 의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배울 수 있었다.





동재
김 시 내



신공민계획은 남도공익기금회의 산하 기관으로 2007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 기관이다. 보통교육에서 소외된 농민공 자녀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중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한 따뜻한 희망을

신공민계획은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중국의 비영리 기관이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농민공 자녀들을 위해 교육자 양성, 후원 기금 전달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한다.

신공민계획은 직원 수가 20명 정도인 작은 규모의 기관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나를 맞아주었다. 대규모 기금회와는 달리, 봉사자들을 직접 모집하고 봉사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사랑스러운 아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낯선 사회문제였던 농민공 자녀 문제를 다루고, 한국과는 다른 중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부딪혀 보아야 안다.’는 말을 실감하며, 나는 조금씩 많은 중국의 농민공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고 후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웠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고민한 경험은 앞으로 나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아라산SEE공익기구는 2004년에 창립된 아라산SEE생태협회가 발전하여 2008년에 설립한 중국 환경·생태 분야의 공익기구이다. 사회를 의미하는 ‘Society’, 기업가를 의미하는 ‘Entrepreneurs’, 그리고 생태를 의미하는 ‘Ecology’의 영어단어 앞글자를 결합한 명칭이다. 즉, 중국 기업가들의 국내 환경·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발현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기구이다.

동재
김 동 민



중국, 대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다

극심한 대기 오염과 사막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부에서는 내가 근무한 아라산SEE공익기구가 주축이 되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특히 내가 속한 ‘자연몽상공간’이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제 ‘공간’을 확보, 관리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로 정부, 기업, 비영리 기관, 일반 민중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아라산SEE공익기구에서 일하며 나는 일회성의 환경보호 캠페인이 아닌 대중들을 위한 자연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각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또한, 성공한 기업가들이 열정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에 나서는 것을 보고 진정한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을 직접 보며 나는 한국의 환경보호, 자연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다.

동재
정 호 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산서원 제7기 베이징 펠로우들은 퇴근 후 베이징 국제청년연수학원에 모여 중국사를 공부하였다. 중국인 선생님이 고대사와 근대사로 나누어 가르치셨는데 중국 정치사를 중심으로 문화사와 사회사가 맛깔나게 곁들여졌다. 역대 왕조가 각자 가지고 있는 제도적 결함과 더불어 일련의 전쟁을 어떻게 극복해내며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해 나갔는지, 어떤 원인으로 각 왕조가 멸망의 길을 걸었는지, 큰 흐름 속에서도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사와도 많은 접점을 가진 중국 근대사를 배우며 우리

의 역사적 발자취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 또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중국과 우리나라가 적이었던 한국 전쟁과 같은 역사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한중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에 관한 중국인들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퇴근 후에 다소 피곤한 몸으로도 다섯이 오손도손 모여, 마치 말로만 듣던 옛날 야학과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중국 역사와 즐겁게 데이트할 수 있었다.

중국 고대·근대사 문화수업
퇴근 후 중국 역사와 데이트하기



경극 <라오셔차관(老舍茶馆)> 관람
라오셔차관에서 중국의 전통과 만나다

동재
김 시 내

비 오는 날 저녁, 원생들은 따뜻한 중국의 전통차와 악사가 맞아주는 라오셔차관에서 중국의 전통문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은 북경금서(北京琴書)로 시작하여 마술, 곡예, 인형극, 그리고 만담(漫談)과 변검(變臉)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대목은 곡예였는데, 긴 목의 주전자로 쿵푸를 하며 차를 따르는 묘기와 많은 접시를 길고 가느다란 막대 끝에 올려 빠르게 돌리며 춤을 추는 묘기는 공연을 즐기던 관객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다. 새소리로 시작해 기차 경적, 비행기 이륙 소리 등 목으로 가지각색의 소리를 내어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공연도 있었다.

공연 사이에 등장해 유머를 던지며 공연 설명을 하는 사회자나 만담에 등장하는 두 연기자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즐거운 분위기와 웃음은 언어를 초월하는 것일까? 신기하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다 함께 같은 순간에 웃고 박수를 치며 즐길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시안 문화기행은 문화수업을 통해 배웠던 중국의 역사를 생생히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글로만 접하던 중국 역사를 유물을 통해 직접 보고,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니 마치 과거의 인물들과 같이 숨쉬며 대화하는 것 같았다. 시안에 녹아있는 중국의 기나긴 역사를 느끼며 더욱 넓고 깊은 견문을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중국 시안(西安) 문화기행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시안

동재
김 동 민

1400여 년간 13개의 중국 왕조의 수도로 자리매김했던 중국의 고대 도시 시안. 시안으로 문화기행을 떠나기 전부터 제7기 베이징 펠로우들은 중국의 역사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유구한 역사 속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떠나기 전에 가졌던 설렘은 시안에 도착하고 난 후에는 끊임없는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병마용갱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원히 누리하고자 했던 진시황의 모습이, 화청지에서는 중국 세기의 로맨스인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형형색색 녹아들어 있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세계적인 싱크탱크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 및 저명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지난 2011년 아산 정주영 선생의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구현'이라는 아산 선생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생력 복원과 지속적인 역량 개발 사업을 통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 청년들의 창업 정신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아산서원 제7기 원생 기자단 Voyage 후기

지난 10개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글로 다시 태어났다. Voyage는 단순한 기록만은 아닐 것이다. 아산서원에서의 추억을 담은 책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10달간 성장한 제7기 원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펼쳐질 30개의 Voyage는 이제 시작이다.

- 동재 **성 예 은**

원생들이 쓴 글의 첫 번째 독자가 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진 기자단의 업무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마음 설렜다. 원생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 내가 보지 못한 부분 등을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은 아산서원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글을 다듬으며 나는 어느새 나의 마음도 함께 다듬은 듯하다.

- 서재 **고 민 정**

원생들의 주옥 같은 글들이, 논리와 이성에 갇힌 권위의 인문학이 아닌, 사람을 담은 글들이란 점은 편집자인 동시에 독자로서 나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함께 고생한 민경이, 민정이, 예은이 그리고 감동적인 글을 선사해준 30명 원생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 서재 **김 재 영**

기자단 일은 나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기자단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30명의 글을 읽는 것이었다. '500자'라는 작은 틀 안에 글을 옥여넣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곤 하였지만, 깊은 고민과 함께 글을 다듬으며 많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다. 비록 아쉬움도 남지만, 제7기의 손에 우리만의 Voyage를 선물할 수 있음에 기쁘다.

- 서재 **차 민 경**

VOYAGE

아 산 서 원 제 7 기

펴낸날	2016년 01월 15일
펴낸곳	아산서원
엮은이	아산서원 제7기 원생 기자단
편집인	아산서원 운영실
편집디자인	EGISHOLDINGS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asanacademy.org

아 산 서 원

A S A N
ACADEMY

峨 山 書 院

<http://www.asanacademy.org>

<http://blog.naver.com/asanacademy1>

<http://www.facebook.com/asanacademy>